

금융시장, 안정 실마리는?

그림1. 이스라엘 세겔화 가치 하락과 CDS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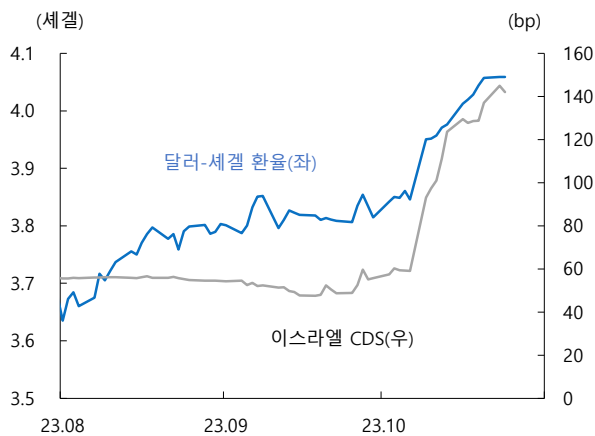


그림2. 이스라엘-하마스간 분쟁의 확산 리스크가 다소 낮아 지면서 유가도 우려와 달리 80 달러 중후반대에서 등락 중



그림3. 9월 FOMC 회의 당시 파월의장의 매파적 기자회견 이후 급등세로 돌변했던 미국 10년 국채금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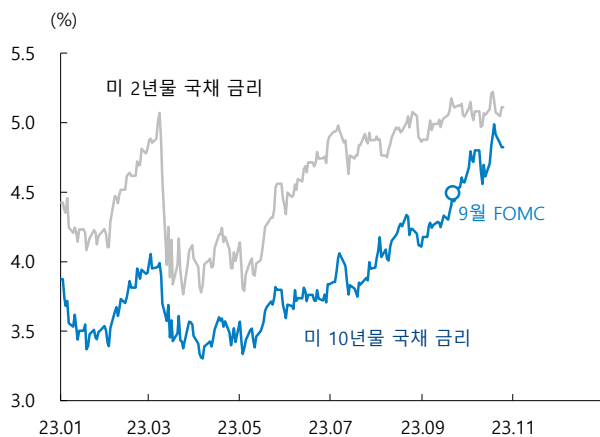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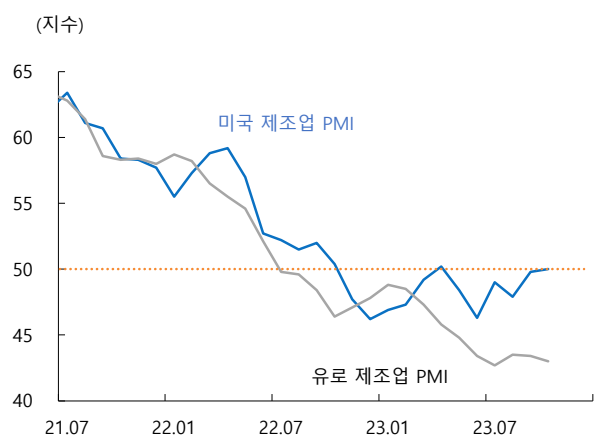


그림4. 여전히 부진한 미국과 유로존 제조업 경기



자료: Bloomberg, CEIC,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■ 11 월 중 불확실성 리스크 완화가 필요

- 유가 추가 하락

- 당사는 지난 23 일자 보고서(금리 포비아: 쌓이는 박스피 리스크)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 국채의 고금리 행보가 11 월 중 단기 분수령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임.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변수 및 이벤트를 정리하면 크게 4 가지 정도로 요약됨
- 우선, 중동 리스크 약화에 따른 유가 불안 해소임.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진입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남아 있지만 확전 리스크는 다소 낮아지는 분위기임. 미국과 이란 모두 확전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임
-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행정부가 이란 측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에 개입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주장하였고 이란 역시 헤즈볼라에게 이스라엘 군사 표적에 대한 제한적 공격만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짐. 미국이나 이란 모두 확전을 경계하는 모습임
- 따라서, 이스라엘-하마스간 분쟁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확전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유가는 우려와 달리 안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임. 이러한 상황(=시나리오)이 11 월 중 현실화될지가 주목거리임

- 미국 경기와 금리의 동반 둔화 가시화

- 최근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의 원인은 인플레이션 및 수급 우려도 있지만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기도 한 몫을 함. '금리가 물가와 성장의 함수(금리=f(물가, 성장))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사이클도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
- 3 분기 GDP 성장률은 호조를 보이겠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경기 둔화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음. 강한 고용시장 흐름을 고려할 때 미국 경기의 침체를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4 분기부터 성장 둔화가 감지될 공산은 높음
- 즉, 성장(=경기)과 금리간 본격적인 동반 둔화 현상이 11 월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됨. 특히 당사가 강조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등 고용지표 둔화 여부는 금리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

- 11 월 FOMC 회의 결과: 매에서 비둘기로 변신 필요

- 동결이 예상되는 11 월 FOMC 회의 내용과 파월 의장의 발언도 중요한 변수임. 지난 9 월 FOMC 회의 기자회견에서 파월의장의 예상 외의 매파적 발언이 국채 금리 속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파월 의장이 이번에는 국채 시장을 달래는 메시지를 줄 지도 중요한 이벤트임
- 국채 금리 속등이 중소은행들의 위기를 재부각시킬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파월 의장이 이번에는 비둘기 색채를 띌 가능성이 있음

- 미 연방 정부 폐쇄 리스크 해소

- 미국 연방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11 월 17 일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11 월 초부터 연방 정부 폐쇄 리스크가 재차 불거질 수 있음. 공화당내 갈등으로 하원 의장 선출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11 월 17 일까지 민주-공화당이 23~24 년 예산안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임
- ※ 참고로 하원의장 선출을 두고 스킨스·조던 이어 미 공화당 3 번째 하원 의장 후보도 에머 후보마저 극우파의 반대로 낙마하면서 하원의장의 공석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
- 따라서 11 월 들어 연방 정부 폐쇄 리스크가 고개를 다시 들겠지만 또 다른 임시 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 연방 정부 폐쇄 위기를 재차 넘길 것으로 기대됨. 다만, 미국 정치적 갈등 문제는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 경제와 국채 금리에는 잠재적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

■ 11 월 중 국채 금리 안정이 확인되면 긴축 발작 징후도 해소될 듯

- 성장과 금리간 동반 둔화 현상 가시화 기대

- 금융시장의 커다란 악재인 국채 금리 급등 현상이 진정된다면 긴축 발작 현상 완화는 물론 미국 경기 연착륙에 일조를 할 것임
- 성장과 금리간 동반 둔화 현상 본격화 속에 성장과 금리간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의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. 따라서, 미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기 보다는 동결 기조를 유지할 여지가 커 보임

Compliance notice

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
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 : 박상현, 류진이)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